

삭힘의 미학, “나주서 ‘홍어의 맛’에 취하세요”

24~26일 영산포 홍어축제
나주 최장수 음식문화축제
시식부터 체험·할인 구매도

6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영산포 속성 홍어의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나주에서 펼쳐진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간 영산포둔치 시민체육공원 일원에서 ‘제20회 영산포 홍어축제’가 열린다.

나주지역 최장수 음식문화잔치인 영산포 홍어 축제에서 홍어를 소재로 시식 및 다양한 체험, 콘테스트,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축제추진위원회는 ‘홍어 맛보-go~ 음악 취하-go~ 양귀비 물들-go’라는 주제로 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삭힘의 미학’을 전국의 미식가들에게 선보인다.

또 사흘 간 행사장 홍어 판매부스에서 50% 상설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인근 홍어의 거리 상가를 방문하면 30% 할인된 가격에 정품 영산포 속성 홍어를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열린 제19회 나주영산포홍어축제에서 홍어잡이배가 영산강을 거슬러 나주 영산포구에 도착하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계란 1000개를 방문객 1인당 10개씩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갖는다.

세대별 홍어 애호가를 선발하는 ‘홍어 시식 콘테스트’, 홍어를 초특가에 구매할 수 있는 ‘홍어 깜짝경매’, ‘홍어 예쁘게 썰

기’, ‘홍어 탐 썰기’ 등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이 축제기간 내내 진행된다.

음식부스에서는 홍어삼합에 막걸리를 곁들 홍탁과 홍어회, 찜, 홍어애국 등 다양한 홍어 음식을 판매한다.

축제 개막식은 24일 오후 6시부터 열린다. 축제 분위기에 흥을 더해줄 공연 무대도 기대를 모은다.

25일 축하공연은 우연이·배일호·전가연·박건우·동후, 26일에는 김희재·무룡·최윤하·나혜진·김산하·김벼리 등 트로트 가수가 총출동한다.

어린이 관광객들을 위한 ‘풍선요기쇼’ (24일 오후 3시), ‘코믹매직쇼’ (25일 오후 3시), ‘파워버블쇼’ (26일 오후 3시)도 눈길을 끈다.

폐막하는 26일엔 영산강 밤하늘을 수놓을 불꽃쇼도 예정돼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수많은 음식이 차려진 잔치상에도 ‘홍어가 없는 잔치는 잔치가 아니다’고 말할 정도로 속성 홍어는 전라도의 대표 음식”이라며 “맛의 깊이는 물론 건강에도 탁월한 보양식인 영산포 속성 홍어 요리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홍어 축제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1인 청년가구에 ‘아침식사 밀키트’ 지원

80가구 대상 총 4회 배달

아침 식사를 거르는 나주지역 청년들을 위한 밀키트 지원 사업이 1인 청년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올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했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20~45세 1인 청년가구 80가구를 대상으로 아침식사용 밀키트를 지원했다.

밀키트는 간편한 레시피로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1회당 2가지 메뉴로 구성됐으며 신청자 추첨을 통해 선정된 1인 청년 가구에 주 1회(총 4회) 지원했다.

성과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참여자의 주 5일 이상 아침식사 실천률이 사전 15%에서 사후 32.5%로 약 2배 증가했다.

주 4일 이상 저녁 식사를 배달 음식, 외식으로 했던 청년 가구는 31.3%에서 5.1%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4일 이상 집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해 식사한 가구 비율은 사전 11.3%에



서 사후 41.3%로 크게 증가했다.

사업에 참여한 30대 이모 씨는 “직장을 다니면서 아침집밥을 거르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간편한 밀키트 덕분에 직접 집밥을 해 먹으니 하루가 든든하다”며 “밀키트를 지원 받은 이후 장을 보는 일이 잦아져 지역 상권에도 도움을 준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 공급과 같은 주거와 일자리, 풍족한 문화생활에 건강한 밥상까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매력 넘치는 나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반기 밀키트 지원사업은 오는 9월에 80명을 모집해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나주=조대봉 기자



윤병태 나주시장이 일곱째 남아를 출산한 가정을 찾아 축하를 전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일곱째아 출산’ 소식에 지역사회 축하 이어져

윤병태 시장, 박 씨 부부 찾아
출산장려금 1천만원 등 선물전달

나주시의 한 다둥이 가족에게 7번째 새 생명이 태어나 기쁨을 주고 있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송월동에 거주하는 박 씨 부부가 지난 3월26일 일곱째 남아를 출산해 7남매(4남3녀)를 둔 다복한 가정이 됐다.

지난해 5월 빛가람동 서 씨 부부의 여섯째 출산에 이어 원도심 지역에서 일곱째가 태어나면서 지역사회 축하가 이어지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최근 박 씨 부부 자택을 찾아 꽃다발을 전하며 가족의 건강과 화목을 기원했다.

나주시는 이 가정에 출산장려금 1000만원과 첫만남 이용권 300만원,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 10만원 상당 신생아 용품 등을 지원했다.

나주농협, 영산포농협, 나주축협, 남양유업, ㈜팔도, ㈜대한식품, 완도물산 등 지역 농협과 기업에서도 물품교환권, 쌀, 한우, 미역, 김, 분유 등 200만원 상당의 축하선물을 전하며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일곱째 아이를 출산한 설 씨는 “출산장려금, 부모급여 등 출생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다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셋째아 기준 300만원에서 1000만원 출산 장려금 상향,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 신설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도내 5개 시(市) 중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지자체로 등극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고 전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 없는 임대주택 100호 공급, 산업단지 근로자 무료통근버스 운영, 1인당(3000명 대상) 연간 15만원의 평생학습 비용을 제공하는 나주애(애)배움바우처 등 인구유입 정책을 폭넓게 펼치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초저출산 시대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 큰일을 해주셨다”며 “일곱째아 탄생을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쌀 ‘새청무’ 뉴질랜드서 인기 높아

이달 중 2차분 21톤 추가 수출

나주 영산강 들녘에서 자란 프리미엄 브랜드 쌀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2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쌀 ‘새청무’가 이달 중 뉴질랜드에 2차분 21톤을 추가 수출한다.

앞서 나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인 뉴질랜드에 총 140톤의 새청무를 7회에 걸쳐 수출하기로 현지 수입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2월 뉴질랜드 첫 수출 이후 4월 중순부터 현지 마켓에 처음 선보인 ‘새청무’는 상품 진열 일주일 만에 600포(12톤)가 판매될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새청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산 쌀이 주류를 이루는 뉴질랜드 쌀 시장에서 좋은 밥맛과 쫄득한 식감으로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프리미엄 브랜드 쌀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이다.

나주시는 새청무의 현지 인기에 힘입어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된 ‘왕건이 탐낸 쌀’과 ‘으뜸쌀’도 수출길에 올릴 계획이다.

특히 나주시는 오는 19일부터 5박7일간 뉴질랜드·호주를 방문해 현지 수입업체와 ‘나주쌀 1000톤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나주=조대봉 기자